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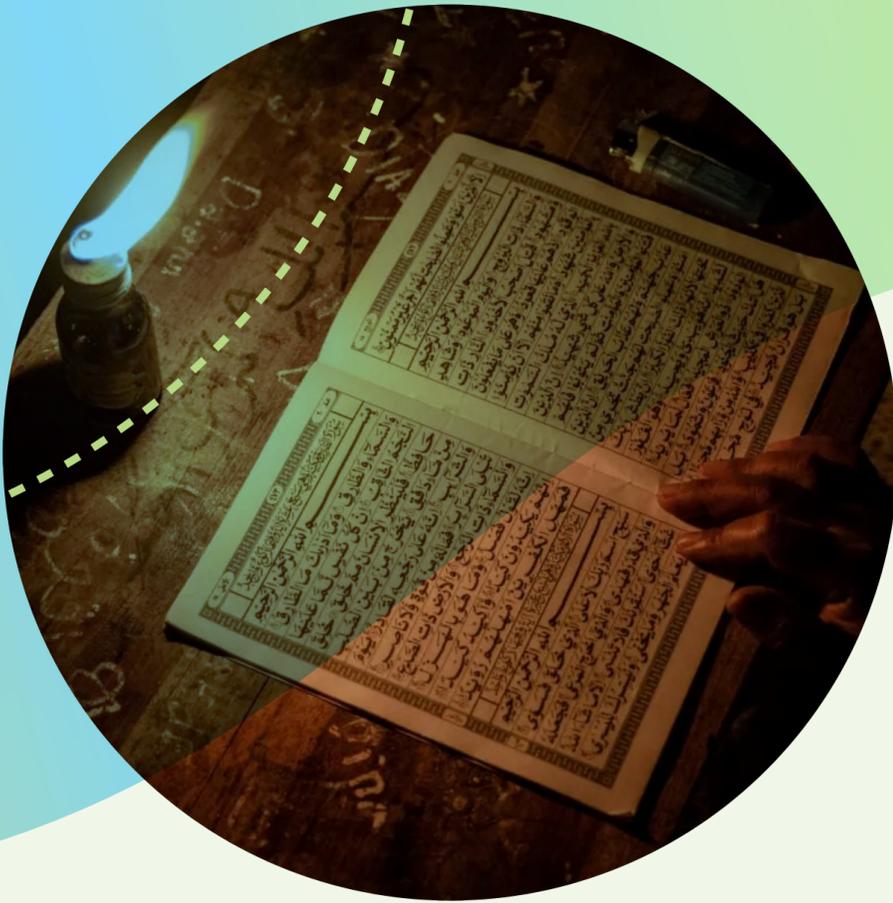
NEW MUSLIM
ACADEMY

꾸러란

편찬의 역사



꾸란은 7세기에 아랍어로 사도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꾸란의 보존을 언급하셨습니다. 최초로 꾸란 구절들이 계시된 순간부터, 꾸란은 철저히 보존되었습니다. 꾸란 편찬 역사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사도 무함마드의 생애 동안 - 610-633년

꾸란은 사도 무함마드의 포교 기간인 약 23년 동안에 걸쳐 계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꾸란의 구절들을 한 번에 일부씩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점진적으로 꾸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우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내린 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간격을 두고 읽어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도 무함마드에게 조금하게 반복하지 말고, 이 계시로 인하여 마음에 안정이 되도록 할 것임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그것을 서두르지 말고, 그것을 읽기 위해 혀를 급히 움직이지 말라. 그것을 모으고 읽을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꾸란의 보존 방식은 주로 구술 전승과 암기에 의존했습니다. 사도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살던 아라비아 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하는 전통이나 경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술 전통을 따르며 역사나 시가, 문학을 기억력에 의존하여 보존했습니다.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때의 주요 보존 방법은 바로 암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꾸란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일부 문자를 아는 무슬림들은 꾸란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도 무함마드는 몇몇 추종자들을 계시를 기록하는 서기들로 임명했으며, 예언자는 종종 그들에게 꾸란을 낭독한 후 그들이 그것을 암기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하나의 장소나 하나의 책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란이 계시되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종이, 대나무 잎과 같은 각기 다른 재료들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꾸란의 구절들은 사도 무함마드의 제자들의 기억 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부 바크르, 오마르, 오스만, 알리와 같은 네 명의 칼리파와 함께, 이븐 마수우드, 자이드 이븐 타베이트, 우바이 이븐 카압 등 꾸란을 잘 암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라마단이 올 때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도와 함께 계시된 모든 내용을 점검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도 무함마드의 생애 마지막 해에는 이 과정이 두 번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꾸란의 정확한 순서와 완성도가 보장되었습니다



2단계: 아부 바크르의 통치 기간 - 633-635년

사도 무함마드의 사망 후, 아부 바크르는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 즉 칼리파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아부 바크르는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가르침을 약화시키려는 여러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부 바크르의 통치는 이슬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적 사상과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전투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 전투 중 꾸란을 암기하는 다수의 무슬림들이 전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후에 두 번째 칼리파가 될 오마르가 아부 바크르에게 꾸란을 하나의 책 형태로 정리하자고 권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꾸란을 암기한 이들이 사망함으로써 꾸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이를 수락하고, 사도 무함마드의 서기 중 한 명인 자이드 이븐 타비트에게 꾸란을 편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자이드는 모든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던 파피루스와 기록 자료들을 모아, 마침내 처음으로 꾸란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편찬은 무함마드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꾸란의 진정성, 정확성, 그리고 완전성은 보장되었습니다.



이 편찬의 주요 목적은 꾸란이 진정으로 보존되어, 그 어떤 이도 그 진위를 의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 책은 메디나에 보관되었으며, 복사나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꾸란 원본이었습니다.



3단계: 우스만의 통치 기간 - 644-656년

아부 바크르와 그의 뒤를 이은 칼리파 오마르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슬람 제국은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비잔티움, 페르시아 등을 넘어 이슬람의 영향이 넓어졌습니다. 많은 새로운 무슬림들이 이슬람에 입교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아랍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꾸란의 낭독에 있어 차이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무함마드의 제자 중 한 명인 후타이파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문제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디나로 돌아온 그는 세 번째 칼리파인 오스만에게 가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이러한 낭독 차이가 서로의 적대감을 초래하거나 더 나아가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오스만은 이를 받아들여, 꾸란에 대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공식적인 복사본을 이슬람 전 세계에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스만은 사도 무함마드의 제자들 중 네 명을 지명하여, 자이드 이븐 타비트의 지도 아래 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자이드는 이전에 아부 바크르가 임명한 인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아부 바크르 시대의 꾸란 원본을 바탕으로 복사본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은 각 지방의 주지사에게 한 부씩 보내고, 그 외의 비공식적인 복사본들은 모두 불태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꾸란 편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꾸란 복사본과 함께, 오스만은 각 지역에 꾸란을 정확히 읽고 암기할 수 있도록 교사들도 파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꾸란은 오스만이 승인한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꾸란을 정통 교사에게 배우는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